



한화오션 협력사협의회, '안전·생산성' 다짐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지난 16일 워크숍을 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기로 했다. 18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한화오션 원·하청 상생협력 선포식'에 이어 실질적인 원·하청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측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행사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1일 제22대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단 출범 이후 올해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한화오션



BNK경남은행,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전략과 실행 방향을 공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이번 경영전략회의는 김태한 BNK경남은행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본부 부서장 및 영업점장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BNK경남은행



지역난방공사, 경기대와 '에너지-AI' 인재 키운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대학교와 산학협력을 통해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미래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한난은 지난 16일 경기대학교와 '에너지-AI 인재 양성 및 산학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에너지 산업 현장의 실무 노하우와 대학의 AI 교육 역량을 결합해 인재 양성과 조직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하나금융그룹

‘영유아 장난감 만들기’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7일 명동 사옥에서 2026년 새해를 맞아 미혼모 가정을 위한 '영유아 장난감 만들기'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과 가족들은 바느질부터 마무리 포장 작업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정성을 담아 영유아 장난감을 완성했다. 하나금융은 미혼모 가정의 실제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영유아용 팔랑이와 함께 육아 필수품이 담긴 행복상지도 준비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명절 농산물 안전성 집중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까지 농산물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명절 기간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부터 유통 단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조사 대상은 사과와 배, 딸기, 감귤을 비롯해 시금치, 도라지, 표고버섯 등 제수·선물용 농산물이다. 전국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잔류농약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객 만족도 최상위 0.3% 엔지니어... ‘CS 달인’ 선발

삼성전자 우수 엔지니어 18명 선정
수리정확성·신속성 등 역량 선포가
고객 직접평가, 객관성·신뢰도 높여
휴대폰 8명·가전 9명·B2B 1명 선발

삼성전자 최고의 고객 서비스 전문가들이 2026년 고객 만족(CS) 달인으로 선발됐다.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및 사후 서비스를 전담하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해 고객에게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엔지니어 18명을 CS 달인에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CS 달인’은 뛰어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달성한 우수 엔지니어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수리 정확성, 신속성 등 기술 역량을 선행 평가한 후 고객 만족도 최상위 0.3% 엔지니어를 CS 달인으로 최종 선발한다.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조사로 달인을 선발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고, 엔지니어 최고의 영예이자 서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김영호 부사장이 2026 CS 달인에게 상패를 수여하는 모습. /삼성전자

스 품질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CS 달인을 처음 선발한 2019년 이후 7년간 전체 엔지니어 5300여명 중 달인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인력은 93명(1.7%)에 불과하다. 2회 이상 중복 선정자는 단 27명(0.5%)에 그칠 정도로 경합이 치열하다.

2026년 CS 달인에 선정된 18명은 부문별로 휴대폰 8명, 가전 9명, 기업 대상 서비스(B2B) 1명이다. 올해 CS

달인의 고객 만족도는 역대 선정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았다.

휴대폰 서비스를 담당하는 최수정 프로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소재 광산센터에서 달인에 선정된데 이어, 올해에는 근무지를 서울특별시 삼성강남센터로 옮겨 2년 연속 선정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서울에서 휴대폰 서비스 달인이 탄생한 건 2019년 이후 6년만이다.

B2B 서비스를 담당하는 정승철

‘오리지널 FIFA 트로피’ 한국서 공개 SKT, ‘개인정보 특화 교육’ 기업 탐방

코카-콜라 전세편으로 국내 첫 상륙

코카-콜라가 2026 FIFA 월드컵을 앞두고 상징 자산인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를 한국에 선보이며 본격적인 월드컵 마케팅에 나섰다.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활용한 브랜드 경험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코카-콜라는 지난 16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FIFA 월드컵 2026 우승국에 수여될 오리지널 FIFA 월드컵 트로피를 공개하고, 이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트로피는 코카-콜라 특별 전세편을 통해 한국에 도착했으며 국내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FIFA 레전드이자 브라질 월드컵 우승 멤버인 지우베르투 시우바를 비롯해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 이영표 해설위원, 차두리 화성FC 감독, 구자철 레드엔골드 풋볼



차범근 전 감독(왼쪽)과 FIFA 레전드 지우베르투 시우바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카-콜라

아시아 스포츠 디렉터 등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준엽 한국 코카-콜라 대표와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트로피 공개 이후 인터뷰를 통해 월드컵 무대 경험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을 향한 기대를 전했다. 2026년 대회는 캐나다·멕시코·미국 3개국 공동 개최로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신원진 기자 tree8834@

‘아침에만나’ 누적 27만 끼니 돌파

이랜드복지재단 후원 150여팀 참여

이랜드복지재단은 서울역 인근에서 운영 중인 민간 주도형 무료급식소 ‘아침에만나’의 누적 제공 식사수가 27만 끼니를 넘어섰다고 18일 밝혔다.

‘아침에만나’는 이랜드복지재단과 마가의다라방 공동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총 27만1767끼니가 제공되었으며, 이 과정에 1만6256명의 자원봉사자와 150여팀의 후원자가 동참하며 자발적인 나눔의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

아침 식사 지원으로 시작한 이곳은 현재 하루 세 끼를 책임지는 돌봄 거점으로 성장했다. 매일 오전 400여명

에게 정찬 형태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점심에는 거동이 불편한 쪽방촌 어르신 200명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저녁에는 주 2회 거리노숙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아침에만나’는 단순한 허기 해결을 넘어 이용자의 존엄을 지키는 운영 방식을 고수해 눈길을 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3층에 마련된 대기 공간(카페)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식사는 봉사자가 직접 테이블로 서빙하는 방식을 택했다. 메뉴 또한 간편식이 아닌 밥과 국, 계절 반찬으로 구성된 정찬을 제공해 ‘급식이 아닌 대접’이라는 운영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KISA·나주교육지원청과 중고생 대상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 대응법 소개

SK텔레콤은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특화 교육과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뉴스룸을 통해 1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SKT는 학생들에게 ▲보이스피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T타워에서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경청하는 모습. /SKT

싱·스미싱 등 주요 사이버 범죄 유형과 사례 ▲AI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위협 대응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대응 원칙 등을 소개했다.

/김서현 기자 seoh@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복지에 연60억 투입

출산지원금 등 7개 항목 운영

CJ대한통운이 동절기를 맞아 현장 근로자에게 따뜻한 간식을 제공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경영’에 나섰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6일 윤재승 오네(O-NE)본부장을 비롯해 각 지역 사업담당 경영진들이 전국 25개 서브터미널을 찾아 푸드트럭 이벤트

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약 60억원을 투입해 자녀학자금, 건강검진, 입학축하금 등 7개 항목에 걸쳐 택배기사 복지제도 운영을 비롯해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경조휴가·특별휴무 등의 휴식권도 보장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국가데이터처 ◇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박윤영 △농어업동향과장 김인식 △조사기획과장 노형준 △지역통계기획팀장 박선희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 김지은 △국가데이터허브정책과장 김수영 △통계등록부과장 김병주 △경인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정은숙 △경인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박영욱 △동북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정희상

△동북지방데이터청 농어업조사과장 박범선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박순옥 △호남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서병우 △호남지방데이터청 사회조사과장 명노섭 △동남지방데이터청 농어업조사과장 강동한 △충청지방데이터청 경제조사과장 황영자